



P2-P4 / 교수칼럼

권연경 연구위원의 '삶의 깊이를 생각 하는 가을'이 실려있습니다.



P5-P8 / 느헤미안 칼럼

이수연님의 '이유식을 시작할 때'와 김대연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오다'가 실려있습니다.



P9-P12 / 재정보고와 기도제목

지난달 느헤미아의 살림살이 보고와 기도해주실 내용 등이 있습니다.

뉴스레터

느헤미야

2015년 11월호 (통권 5호)



+ 화롯불 모임 (수료생모임)

10/16 <엄마되기, 힐링과 킬링사이> 독서 토론으로 모였습니다..

11/13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가족 운동회

10/3 느헤미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나게 놀았습니다. 참여해주신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 사진)

+ 종교개혁 기념 채플

10/28 종교개혁 기념으로 심광섭 교수(감신대/조직신학)를 모시고 <프로테스탄트 미학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신학 특강

11/11 <성경이해와 현지답사 특강>라는 주

제로 김동문 선교사(중동 선교사)를 모시고 성경 속의 지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입학 설명회

11/16 2016년도 목회학 연구과정, /기독교학 연구과정 입학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하여 느헤미아의 연구과정 내용과 분위기를 자세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칼럼

삶의 “깊이”를 생각하는 가을

>> 권연경 연구위원

특정 종교를 믿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 나름의 신을 섬긴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느끼는 순간에조차 우리는 사실 누군가의, 혹은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간다. 내 욕망이 나 아닌 누군가에 의해 자극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혹은 그 불편한 사실에 애써 눈을 감는 것일 수도 있다. 얼마 전 타계한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지라르는 우리 욕망의 모방적 본질에 대해, 그리고 그 욕망이 빚어내는 경쟁적 관계와 거기서 생겨나는 폭력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내 “원하는” 많은 것들이 실은 나의 진정한 필요와 무관한, 그저 타인의 경쟁을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래서 그 경쟁 관계가 해소와 더불어, 내 욕망 또한 사라진다. 마치 그토록 열망하던 여인을 손에 넣는 순간, 그녀를 향한 내 열정이 식는 것처럼..... 사실 이는 오래전 “쾌락주의” 철학이 가르친 바이기도 하다. 실질적인 필요와 그렇지 않은 욕구를 구분하는 법, 그것이 진정한 쾌락을 위한 지혜라고 말이다.

요즘 우리는 키에, 특별히 남자들의 키에 민감하다. 키가 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 것처럼 “보이기”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키높이 구두라는 걸 신는다. 한쪽 다리가 짧아 걸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신던 것을, 이젠 키가 작아 “불편한” 사람들이 양쪽으로 신고 다닌다. 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요즘 여학생들은 대개 신랑감의 조건 중

하나로 키를 꼽는다.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왜 그래야 하는지 묻는다. 대개는 “키가 커야 멋있다”는 답을 내어놓는다. 물론 이견 답이 아니다. “왜?”가 해명되지 않는 동어반복이기 때문이다. 왜 멋있느냐고 다시 물으면 대화가 꼬인다.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정작 할 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누구는 “당연한” 것이라 느끼겠지만, 따지고 들면 당연하다는 그 느낌 자체가 일종의 환각일 수 있다. 그저 나의 주관적 선호이거나, 집단적 편견의 산물일 수도 있는 것이다. “키가 커야 좋다”는 선형적(맹목적) 신념 자체를 제외하면, 키가 커서 무언가가 더 좋아질 경험적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내 주변에는 키가 크지 않으면서도 멋진 사람이 키가 크고 멋진 사람만큼이나 많다. 여자의 키가 남자의 키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남자의 키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가 절대적 기준이라 믿는 통념들조차도 실은 우리 모두의 동의 때문에 단단해진 편견에 불과할 때가 많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의 길이”라는 숫자 계산 때문에 “작고 멋진” 남자를 놓치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가?

주체적 삶의 열쇠는 자유다. 물론 우리는 속을 수 있다. 자유롭다는 느낌과 실질적인 자유를 혼동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큰소리치지만, 정작



“내 마음”은 타인의 유혹과 조작에 쉽게 휘둘린다. 내 삶을 둘러싼 수많은 “광고”들은 바로 그런 약점과 틈새를 노린다. 자유롭다는 내 느낌을 건드리지 않은 채, 교묘히 내 욕망의 대상을 자기들의 상품으로 바꿔치기한다. 자기들이 파는 상품이 내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는 헛된 약속을 신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된다. 물론 그들은 나를 “고객님”이라 부른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좋아 보여서” 사는 것뿐이다. 하지만 내가 그 상품을 좋아하게 만든 건 결국 그들의 속삭임이 아니었던가. 물론, 한용운이 멋지게 노래한 것처럼, 사랑도 우리를 복종케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으로 꿰는 무릎과 조작된 복종이 같을 수는 없다. 순간의 환각 속에서가 아니라면 말이다.

한발 늦게 깨닫곤 하지만, 우리 앞의 대상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꿈은 언제나 더 서글픈 현실로 끝이 난다. 선악과가 우리를 신으로 만들 것이라는 속삭임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소중하니까”를 중얼거리며 특정 샴푸로 머리를 감아도, 그 샴푸의 효과는 정확히 비듬을 씻어내는 것에서 끝난다.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기대하며 김태희의 커피를 따라 마셔도, 그것이 주는 만족은 내 삶의 근원적 공허감에는 닿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불안에 속은 것뿐이다. 그리고 내 주변의 상

품들은 나의 욕망과 불안을 알아챘을 뿐이고, 그걸 잠시 가리는 장난을 쳤을 뿐이다.


제대로 된 자유는 내 삶을 움직이는 욕망의 검증을 요구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필요인지, 경쟁이 촉발한 모방 욕망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물음은 결국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관한 성찰로 이어진다. 나의 욕망은 결국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과 얽힐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라고 믿는 삶의 가치에 충실할수록, 그리하여 주변의 공허한 신화나 비본질적 압력에서 벗어날수록, 내 삶은 자유로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묻는 물음을 사치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시인 김현승은 『가을의 詩』에서 “넓이와 높이”보다 “깊이”를 달라고 기도했다. 우람한 자태를 자랑하던 연구실 앞의 플라타너스도 그 많은 잎을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바쁘다. 그리고는 맑은 하늘을 향해 텅 빈 가지를 벌리고 선다. 이렇게 자연이 본래의 자리로 회귀하는 가을은 깊이를 위한 멈춤과 돌아봄의 시간이다. 넓이와 높이를 향한 질주를 잠시 늦추고, “성공”의 “깊이”를 재어보는 시간이다.

올가을엔 이 기도가 유난히 절실하다. 최소한의 논리조차 팽개친 채, 욕망의 전차로 폭주하는 정권도 그렇고, 복음의 논리를 상실한 채 세상의 욕망에 충

“ 내가 진리라고 믿는 삶의 가치에 충실할수록, 그리하여 주변의 공허한 신화나 비본질적 압력에서 벗어날수록, 내 삶은 자유로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묻는 물음을 사치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 넓이의 논리와 높이의 수사가 난무하지만, 그 넓은 속삭임 속에는 아무런 목표가 없고, 그 높음의 수사 역시 다다른 하늘이 없다. 가히 절망이 어울리는 계절이다.

하지만 절망 역시 속임수의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안다. 현실은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에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의 희망이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옛날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절망스런 시간에 우리는 가장 큰 희망을 노래한다. 나사렛 예수 이야기의 전조라면, 우리의 죽음 이야기는 언제나 부활을 바라보는 희망의 이야기다. 부활이 죽음을 신비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답답함에 깊이를 더한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는 그런 가을이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개혁을 위한 연중포럼

영화 <퀴바디스>에 답하다

한국교회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모색

일시

12월 7일 월요일 저녁 7:30

장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3층 강의실

발제

21세기 한국 자본주의와 한국 교회의 공멸 위기 | 변성욱 (CBS 대기자)
개인 구원과 한국 교회의 보수화 | 김근주 (구약학)
한국교회 보수화, 우연인가 필연인가? | 배덕만 (교회사)
한국교회 보수화의 3중 요인과 그 결과 | 김형원 (원장/윤리)

등록

5천원 (느헤미야 정기후원자나 신청자는 무료)

제 4 차 포럼

한국교회 보수화

권력과 맘몬에 물든 교회에 대한 반성

주최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교회개혁실천연대, 뉴스앤조이
주관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후원 (주) 단유빌름

느헤미안

이유식을 시작할 때

>> 이수연 목회학 연구과정 2년



“유아기 초기에는 모유(母乳)나 분유만으로 필요한 영양을 얻을 수 있으나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모유나 분유만으로는 충분한 영양공급이 어려워진다. 이때쯤이면 아기에게 연하고 소화가 잘되는 반고형(半固形) 상태의 음식을 주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고, 고형식(固形食)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주어지는 음식을 말한다.”

위의 설명은 “이유식”에 관한 설명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5-6개월 동안은 품에 안고 젖을 먹여 키운다. 그러다가 아기가 뒤집고 기고 앉을 시점이 될 즈음 엄마들은 이유식을 준비한다. 그 첫 이유식에 대한 감동은 아기를 키워본 사람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아기가 잘 먹어줄까 설레며 불 옆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만드는 이유식. 그 이유식을 아기 앞에 가져가서 뜨겁지는 않을까 ‘호호~’ 불며 아기 입에 넣어주는 첫 손가락..... 모든 처음은 항상 감동이지만 내 아기를 위한 첫 이유식의 감동은 그 모든 것보다 앞선다. 선부른 오해는 마시라. 난 지금 육아에 대한 글을 쓰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느헤미야에서의 나의 첫 배움에서 “이유식”이 떠올려졌기 때문이다.

꽤 질긴 고기를 씹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나는 여전히 젖먹이였다는 것을 이유식을 먹고서야 알게 되었다. 내가 맛본 이유식

은 젖의 맛과는 사뭇 달랐고 지금까지 내가 먹은 것은 너무 부드러운 것들이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이란 이름을 쓸 수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좋았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알기도 전에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장했다. 그런데 그 교회와 함께 한 긴 시간 동안 나를 살찌운 것은 내가 힘들 때 위로하고 안아주고 사랑을 속삭여준 달콤한 젖이었다. 그 젖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서 위로의 젖은 꼭 필요한 것이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젖만 먹고 이유식을 시작하지 못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몸담아 왔던 많은 교회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든 아기들을 위해 위로의 젖만 먹이고 있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이유식을 그때그때 제공하지 못하고 계속 품에 안고 젖만 먹인다. 아기가 기고 앉고 걸으면서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성장하며 한 명의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 감당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교회에 큰 아기들이 넘쳐난다. 10년이 흘러도 30년이 흘러도 젖만 먹는 아기들이 넘쳐난다.


난 느헤미야에 와서 최고의 이유식을 맛보았다. 그것은 분명 젖과는 다른 맛이 났다. 꿀꺽꿀꺽 삼키기에는 버거웠고 오물오물 씹어야 했으며 그 오물오

“ 쉽지만은 않았다. 이제까지 파편처럼 흩어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 추측하던 신앙에서 벗어나 기존 사고의 틀을 해체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들은 처음에 아주 혼란스럽기도 했고 끝없는 도전들을 넘어서야 했던 시간이었다. ”


물 씹는 과정에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졌다. 쉽지만은 않았다. 이제까지 파편처럼 흩어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 추측하던 신앙에서 벗어나 기존 사고의 틀을 해체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들은 처음에 아주 혼란스럽기도 했고 끝없는 도전들을 넘어서야 했던 시간이었다. 고작 4학기에 접어들어 이유식의 맛만 본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 2년여의 시간은 나에게 그냥 스쳐 간 순간이 없었다.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었다. 여전히 신학의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2년 동안 많이 자랐다.

느헤미야의 최고의 셰프들이 영양소를 고려함은 물론이고 진심과 사랑까지 가득 담아 조리한 이유식을 맛있게 받아먹고 있는 지금이 참 다행스럽다. 이유식으로 평생 입맛이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다행스럽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느헤미야를 이유식에 비유하는 것의 의도를 바로 짐작하시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느헤미야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유식의 비유는 오랜 전력이 생활에 대한 대조일 뿐이다. 느헤미야의 강의는 최고의 셰프들의 최상의 요리이다.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 이제 그만 젓을 떼자. 힘써

이유식을 먹고 힘써 예수를 알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자. 

- 1 신과 바다와 나
- 2 제국, 비
- 3 고대안락디언 5집
- 4 랑아니니
- 5 행복하게
- 6 돌 사세요
- 7 가라곡어 죽세요
- 8 기도
- 9 한사랑
- 10 여기
- 11 네번이엔
- 12 러블리



노래만 아니라
이강승5

LEE KIL SEUNG 5
NOT ONLY A SONG 

‘그대 같은 노래(2012)’ 이후 3년 만에 정규5집 ‘노래만 아니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대중음악으로 소개하려 했던 몇 곡과 그 동안 교회에서 거리에서 불러왔던 곡들입니다. ‘노래만 아니라’라는 타이틀은 부조리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자기반성이자 탄식입니다. (‘여기’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이기도 하구요.) 하나님을 향하든, 사람을 향하든 진짜 노래라면 삶의 진실이라는 발자국이 불러진 자리에 선명하게 남아야 할 겁니다. ‘노래만 아니라’ ...

목회학연구과정 2년 재학생

느헤미안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오다

>> 김대연 목회학 연구과정 1년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청춘이란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 인간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그러나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싸늘한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열음에 갇힐 때 스물이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쳐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여든이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사무엘 올만 - 청춘 中>

청춘

‘만물의 푸른 봄철’. 청춘의 사전적 의미는 십 대에서부터 이십 대에 걸친 특정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 같다. 하지만 올만은 자신의 시 ‘청춘’에서, 그것은 특정한 시기가 아닌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되어있다고 말한다. 누구든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함을 뿌리치고 새로운 모험을 떠날 용기가 있다면, 그가 바로 청춘이다.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과연 청춘일까.’

모험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법칙이 있기 마련이다. 그중 하나는 이야기의 주인공

이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이나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느 이야기보다 익숙한 성경 이야기도 그러하다. 성경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도 그 자신들을 둘러싼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고,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을 향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자의든 타의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주어진 자리를 떠나는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이야기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모험은 여행과 다르다. 일상의 익숙함을 버리고 떠난다는 점에서 여행과 모험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여행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익숙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행이라면, 모험은 익숙함에 대한 철저한 포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행이 마냥 즐거운 것이라면 모험은 예측 가능성을 포기하는 어찌면, ‘죽음’이라는 것과 조우하는 것이다.

위로

내게는 모든 것이 익숙하였고 편했다. 질문이 없었고, 어렵지도 않았다. 익숙한 관계와 체제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과 안정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것(관계이든지 학문이든지 시스템이든지)이 주는 익숙함과

“ 누구든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함을 뿌리치고 새로운 모험을 떠날 용기가 있다면, 그가 바로 청년이다.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과연 청년일까.’ ”


안정감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새로운 대안에 대해 갈급함이 더 커졌다. 누군가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위로하려 했고,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상주의자’라고 꾸짖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감각만으로 점철된 위로와 꾸중은 내게 더욱 깊은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러던 중 느헤미야를 만났다.

느헤미야를 처음 만난 것은 세월호 참사 때 즈음이었다. 작년 세월호 참사 당시, 봄이긴 하나 여전히 추웠던 작년 봄, 나는 출석하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월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역자와 몇몇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로부터 '왜 교회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느냐'는 이야기만 돌아올 뿐이었다. 좌절을 넘어 분노가 가득했던 그때, 느헤미야에서 개최한 세월호와 관련된 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했다.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서서 강의를 들어야만 했다. 그 날 교수님들의 발제도 참 좋았지만, 무엇보다 위로가 되었던 것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 아니 많다는 사실이었다.

동역

이후 느헤미야에서 신학 공부를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로 벌써 두 번째 학기가 지나가고 있다. 느헤미

야에서는 교수님에서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다. 교수님들도 그렇거니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우들도 20대에서 50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층은 기본이고 이전에 살아온 삶의 궤적 또한 모두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간혹 속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할 때면, 느헤미야에까지 밀려오게 된 공통된 '이야기'를 발견한다. 기존의 안정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온 모험담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내가 떠난 그리고 느헤미야에 속한 각자가 시작한 모험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때로는 우리들의 모험이 냉소와 비탄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바른길을 찾아 떠났다는 공통된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청년이다. 느헤미야가 떠난 이 모험에 꾸준한 애정과 관심, 기도를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마친다. 

기독교학 입문과정 동영상 강의 오픈



구약

구약이야기 I (율법과예언) | 김근주
구약이야기 II(역사와지혜) | 김근주

신약

예수와 하나님 나라 | 조석민
바울과 하나님 나라 | 권연경

조직신학

하나님과 그의 세상 | 김형원
하나님의 구원계획 | 김형원

교회사

교회역사 이야기 | 배덕만

윤리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 김동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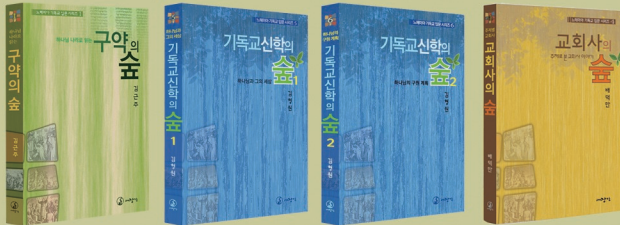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든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vimeo.com/nicsmedia/vod_pages 로 들어가기

2 6개월간 볼 수 있는 한학기 강좌를 선택 (각 강좌 50\$)

3 모두대여를 클릭후 신용카드로 결제 메일만으로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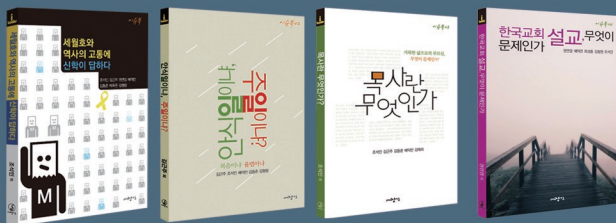
동영상수강은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정규과목이수와는 별개입니다.



김근주, 김형원, 배덕만 교수의 강의 교재는 대장간 출판사 <느헤미야 기독교 입문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시중서점이나 느헤미야에서도 구입가능

느헤미야 이슈북 시리즈



1. 세월호와 역사의 고통에 신학이 답하다
2.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복음이나 율법이나)
3. 목사란 무엇인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무엇이 문제인가?)
4. 한국교회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

목회학 연구과정·기독교학 연구과정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본 과정은 성서적 복음주의 신학, 교회를 살리는 대안적이고 보편적인 신학,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기독교의 신학과 교회, 신앙의 틀을 새롭게 형성해 나갈 지도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모집과정	수업연한	모집인원
목회학 연구과정 (Pastoral Studies)	3년	30명
기독교학 연구과정 (Christian studies)	2년	

응시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혹은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본 연구원 소정양식)
2. 최종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각 1부
3. 자기소개서 (본 연구원 소정양식)
4. 추천서 2부 (목사 및 멘토 추천서)

원서접수 2015년 12월 1일 ~ 12월 10일

(우편접수시 마지막날 우편발송까지 유효)

전형방식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 (일정은 추후 통보)

학업방식 주중 3일 (화, 수, 목) 주간 수업

(단, 1학년은 화/목 야간수업 병행)

등록금 학기당 300만원

특 전 입학생 전원 반액 (150만원) 장학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nics.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학입문과정은 2016년 2월에 모집합니다

후원동역자와 재정보고

2015년 8~10월

개인후원

강경란, 강도영, 강민혁, 강범일, 강성희, 강상태, 강수연, 강신하, 강인성, 장인자, 강진규, 강현걸, 강화춘, 고미혜, 고용주, 고윤일, 고인환, 고재광, 공경표, 공영찬, 광명화, 구자욱, 권경옥, 권두현, 권명재, 권민영, 권민정, 권성호, 권세운, 권원아, 권원진, 기호용, 김경란, 김경모, 김규동, 김근주, 김기범, 김기현, 김기현, 김난희, 김남호, 김대연, 김대원, 김택, 김동훈, 김태산, 김미정, 김민석, 김민수, 김민철, 김봉래, 김사연, 김상열, 김상욱, 김석원, 김석주, 김석태, 김선, 김선호, 김성래, 김성열, 김성학, 김소희, 김수정, 김아름, 김아주, 김양현, 김연희, 김영승, 김영진A, 김영진B, 김요한, 김용순, 김우빈, 김은경, 김은성, 김은애, 김인성, 김인정, 김재신, 김재길, 김정은, 김정현, 김중욱, 김중립, 김주석, 김준수, 김준혁, 김지은, 김지연, 김지현, 김진, 김진미, 김진우, 김진철, 김진희, 김철휘, 김태원, 김태윤, 김태환, 김하양, 김하영, 김한나, 김현,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형규, 김희정, 나정수, 나종삼, 남백희, 남오성, 남일성, 남철, 노민규, 노향림, 노혜미, 노활석, 등방호현, 무명, 무명, 문기순, 문명관, 문인정, 문형욱, 문혜진, 문효민, 민은경, 민은주, 민지영, 박국아, 박기용, 박민규, 박병만, 박보은, 박상백, 박성민, 박성준, 박소영, 박애영, 박연주, 박영실, 박영혜, 박은정, 박재이, 박재훈, 박정로, 박정수, 박정숙, 박종만, 박준영, 박중순, 박지호, 박진일, 박진호, 박현희, 박형준, 박혜원, 박혜정, 방미향, 방성희, 방필연, 배명성, 배민철, 배성호, 배소연, 배은기, 배태욱, 배한나, 백민정, 백승훈, 백용환, 변성진, 변은혜, 변지연, 서미영, 서연자, 서주희, 석은진, 성경식, 성시운, 손주환, 손주희, 손태훈, 송경근, 송덕무, 송아진, 송은진, 송창달, 송현미, 송효진, 신선영, 신소용, 신승술, 신주현, 신지호, 신현오, 신혜성, 심재용, 안경숙, 안병열, 안윤희, 안재영, 양지영, 엄태진, 여신애, 오금애, 오세민, 오수경, 오숙현, 오인성, 오주희, 오지현, 오혜경, 옥금희, 온상원, 왕정수, 우승정, 우종화, 유가을, 유경석, 유경원, 유동식, 유명중, 유병욱, 유병진, 유병휘, 유술, 유수경, 유슬기, 유영백, 유욱, 유정훈, 유주현(정수원), 유지희, 유태완, 유호영, 유희창, 윤광영, 윤기석, 윤기원, 윤민구, 윤성운, 윤수일, 윤원식, 윤준택, 윤진아, 윤희정, 이경직, 이경하, 이귀영, 이규범, 이규복, 이근우, 이길승, 이동주, 이동환, 이로운, 이명희, 이미순, 이미영, 이방욱, 이병선, 이병욱, 이보람, 이사람, 이상길, 이상진, 이상호, 이세순, 이수미, 이수연, 이수정, 이수진, 이순조, 이승민, 이신석, 이양철, 이연우, 이영순, 이영주, 이완수, 이우화, 이웅진, 이원근, 이원혁, 이윤정, 이은재, 이일수, 이장은, 이재원, 이재은, 이정민, 이정희, 이종규, 이주, 이주연, 이준승,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진숙, 이창민, 이창선, 이태호, 이풍관, 이현일, 이행구, 이향숙, 이현미, 이현창, 이형석, 이희석, 임경숙, 임석환, 임종화, 임진화, 임철호, 임혜진, 장진세, 장경숙, 장미경, 장상순, 장은선, 장의신, 장인숙, 장재규, 장재원, 장현일, 장혜영, 장효진, 전갑수, 전계명, 전미이, 전성현, 전세훈, 전재은, 전준환, 정국진, 정라람, 정명숙, 정석구, 정선희, 정영애, 정영희, 정원순, 정은주(정복순), 정이랑, 정재기, 정재도, 정재훈, 정지영, 정지은, 정지훈, 정진호, 정진희, 정찬영, 정재명, 정철규, 정택인, 정하나, 정혁규, 정혜경, 정혜식, 정희진, 정훈재, 정희원, 조경원, 조기행, 조선미, 조성모, 조성영, 조성욱, 조성표, 조순례, 조영민, 조원규, 지성학, 진실에, 차미나, 차승언, 차정호, 차미혜, 채인규, 채인혜, 채혜진, 채재성, 최경아, 최경진, 최동국, 최미근, 최성호, 최세진, 최소영, 최순남, 최영상, 최영희, 최유나, 최용주, 최윤호, 최은주, 최일호, 최자연, 최재훈, 최진선, 최진영, 최혁순, 최현복, 최혜영, 최황덕, 하규하, 하상호, 하태권, 한나영, 한명석, 한명호, 한미원, 한상은, 한성문, 한송희, 한승환, 한유진, 한은혜, 한인희(유태호), 한지일, 한혜원, 함봉식, 허상영(조은연), 허성호, 허진석, 허환구, 현지운, 호욱, 홍인경, 홍준호, 황가영, 황남조, 황선관, 황성주, 황준영, 황혜정

연구위원 후원

고선숙, 권연경, 김영문, 김은형, 김인철, 김창식, 박금자, 안재엽, 이윤희, 정혜식, 조상우, 조석민

교회 및 단체후원

100주년기념교회, 개포동교회, 그루터기교회, 나들목교회, 산아래교회, 산울교회, 삼일교회, 새마교교회, 서울영동교회, 신바람홈케어, 어울림교회, 어울림교회-남태일목사, 열린가정교회, 예인교회, 일산은혜교회, 주님의보배교회, 주사랑교회, 진명해피케어, 한그루교회

장학후원

무명, 무명, 무명, 무명, 무명, 무명, 무명, 무명, 신바람홈케어, 이은미

목적후원

이유진(사무보조후원)

특정목적후원

김석주(운동회), 이원근(운동회물품), 장경숙(밥상공동체 반찬), 전갑수(현직담사)

운영성과

계정과목	8월	9월	10월
사업수익	47,884,195	21,840,950	23,802,300
후원금	16,280,000	14,300,000	21,360,000
일반후원금	13,030,000	12,500,000	17,410,000
특정후원금	3,250,000	1,800,000	3,950,000
사업수입	31,604,195	7,540,950	2,442,300
수강료수입	30,650,000	3,840,000	1,900,000
사업수입	954,195	3,700,950	542,300
사업비용	18,732,921	24,038,406	16,609,211
사업운영비	8,247,140	7,868,686	6,533,500
사업인건비	5,100,000	6,970,000	5,320,000
사업진행비	347,140	557,320	813,500
사업홍보비	300,000	341,366	400,000
수업료지원비	2,500,000	0	0
관리운영비	10,485,781	16,169,720	10,075,711
인건비	3,646,860	4,609,880	3,634,880
사무관리비	6,838,921	11,559,840	6,440,831
당기 순자산의	29,151,274	-2,197,456	7,193,089

재무상태

계정과목	금액
자산	
유동자산	64,051,983
당좌자산	64,051,983
비유동자산	61,313,450
투자자산	5,700,000
유형자산	35,613,450
기타비유동자산	20,000,000
자산총계	125,365,433
순자산	
기본금(영구제한)	1,445,000
잉여금(제한없음)	123,920,433
잉여차액	123,920,433
당기차액	63,944,037
순자산총계	125,365,433
부채와순자산총계	125,365,433

느헤미야 앞으로의 일정

11/ 24, 26 입문과정 종강

12/10 기독교학 / 목회학 연구과정 종강

12/12 기독교학 심화과정 종강

12/17 (목) 저녁 7:30 '화롯불 모임 총회 및 수료생 홈커밍데이'로 모입니다. 입문과정 수료생들 꼭 참석해주세요.

12/7 연중 포럼 영화 퀴바디스에 답하다. (제4차)
한국교회의 보수화-맘몬과 권력에 물든 한국교회
발제 : 변상욱, 김근주, 배덕만, 김형원

방학 중 특강은 온라인소식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25일-27일 청소년 캠프 예정

기도와 동역

1. 내년도 기독교학./목회학연구과정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2. 전임교수 확충과 교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3. 방학특강과 방학중 행사들을 위하여

편집부 알림

느헤미야 뉴스레터는 격월로 발간됩니다. 이 뉴스레터는 후원자와 후원교회에 한하여 발송됩니다. 좋은 글을 보내주시면 실어드릴 것입니다. 특히 후원자와 재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실 때마다 동역의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후원자님들은 사무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느헤미야

발행인 김형원

편집인 고상환

편집부 광명화 배한나

발행일 2015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길 5-15 구미빌딩 2층

H. www.nics.or.kr P. 070-8260-0208

F. 02-323-0208 E. nics@nics.or.kr

팟캐스트. 에고에이미

후원방법

<정기후원>

www.nics.or.kr/funding에서
자동이체후원 신청

<무통장 후원>

국민 822401-04-042816

국민 093401-04-186547

(재)한빛누리(기부금영수증 발급)

연구위원 후원

신한 100-027-945530

학생 장학금 후원

국민 012501-04-251307

해외에서 후원

Swift CODE : CZNBKRSE

국민 822401-04-042816